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 조성 본궤도 오르나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앞뒤… 주민 수용성 확보 ‘궁정’
내년 국비 37억원 중 7억5000만원만 확보… 증액 총력

주민수용성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제주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에 돌입하면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다만 내년도 국비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일부만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는 폐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도내 최초의 종합 재활용산업단지다. 사업 전체 부지는 제주도 구좌읍 동북리 일대 22만7000여㎡

에 총 사업비 49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 환경부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해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당초 2025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조사·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로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업 추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초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고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청 관련 부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향후 도는 해당 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도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제주도 사이에도 사업 추진을 둘러싼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어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내년도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37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최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는 7억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요구액의 약 20% 수준에 그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제주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중점 보완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과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수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의 정당성을 국회에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구악마를 전통옹기전수관에서 열린 옹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소금 단지를 빚고 있다. 제주옹점 제공

옹기처럼 따스하게 마을 공감 채운다



<6> 제주옹점(상)

지역 예술가들 의기투합 옹기마을 공감 프로젝트 체험 위주 3단계 프로그램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는 ‘옹기마을’로 불린다. 마을을 둘러보면 옹기를 주제로 조성한 공간들을 볼 수 있다. 옹기전수관, 옹기체험관, 옹기카페 등이다. 제주 전통 옹기의 맥을 잇고 있는 마을이라는 자부심이 읽힌다.

구억리 기반의 비영리 단체 제주옹점이 올해 처음 ‘2026 정착주민의 지역 공동체 조성 사업’에 나선 배경도 거기에 있다. 구억리를 포함한 대정읍에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 이래 마을의 풍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 옹기를 매개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어울리며 따스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사업명은 ‘옹기마을 공감 프로젝트’. 구억리와 주변 마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하며 사업 구상에 탄력이 붙었다. 깊이 있는 제주 옹기 체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강좌로 세부 내용을 짰다.

제주옹점은 대정읍 일원에 동지를 둔 주민 등 10명을 모집해 지난 8월 초 ‘옹기마을 공감 프로젝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참가자의 절반은 제주에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정착주민들이다.

프로젝트는 ‘옹기 특색 이야기 마당’ ‘옹기터 탐방 클래스’ ‘옹기마을 예술 살롱’ 등 3단계로 구성했다. 주말을 이용해 매회 3시간씩 총 9회에 걸쳐 제주구악마를 전통 옹기전수관, 갤러리 카페 옹점 등에서 체험 위주 과정을 이어 간다.

그간 제주 옹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통 옹기장 시연 관람과 옹기 제작 체험, 옛 옹기터 탐방, 옹기마을 공동체 지도 제작 등 네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첫날엔 강병철 구억리장이 참석해 옹기마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정착주민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제주옹점은 이 사업을 홍보하며 “옹기처럼 단단하고 따뜻하게, 우리 마을의 공감을 함께 채워가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경희 제주옹점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제주 옹기의 가치 확산을 넘어 지역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남은 일정도 참가자들이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작 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힘찬 물줄기 9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한 농가에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본격화

350억원 투입 구좌읍 행원리에 실증시설·배후부지 조성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와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 등 제주 양식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갔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실증시설과 배후부지를 조성한다.

실증시설은 1만6824㎡ 부지에 연면적 4688㎡ 규모로 물을 적게 공급하면서 여과해 쓰는 저환수 순환

여과 양식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통합관리 체계를 갖춘다.

수조면적 1443㎡ 규모의 양식동에는 수온과 수질을 조절하는 사육시설이 설치되며 하루에 채워 넣는 바닷물 양에 따라 저환수 유수식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 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와이덱스 보청기

CGV

광양사거리

← 화북

무료주차 가능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